

문화



28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승효상 예술 총감독이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도가도비상도’

노자 도덕경서 인용… 디자인 본질 찾기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 건축가 10명 ‘폴리 프로젝트’ 눈길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주제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道)는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따왔다.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도라고 칭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문구 중 길 도(道)를 디자인을 뜻하는 그림 도(圖)로 바꾼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가장 중요한 기획 의도는 넘쳐나는 디자인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본질을 찾는 것.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터넷과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과거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장소와 사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볼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는 크게 ▲유명(Named) 디자인 ▲무명(Unnamed) 디자인 ▲폴리 프로젝트(Follow Project) ▲아카데미와 커뮤니티(Communities)로 나눠 진행된다.

유명디자인은 현재와 과거에 디자인 분야에 중요한 ‘이름’을 남긴 100명의 혁신적인 사람들의 작품·사건을 모은 섹션이다. 무명디자인은 이와 반대로, 이름이 없는 무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공동감독인 아이 웨이웨이가 지휘한다.

이 두 섹션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디자인적인 요소’를 비교 감상하며,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광주 곳곳에 기법을 만한 건축조형물을 세우는 ‘폴리 프로젝트’도 눈여겨봐야 할 기획이다.

세계 100대 건축가 중 10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 도미니크 페로를 비롯해 스페인의 신예 건축가 알레한드로 자에라 펠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광주읍성 주변의 버스정류장, 하천제방,

다리, 지하철 게이트 등에 도심건축조형물을 세운다. 현재 참여 건축가 선정 작업 중이며,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 설계와 건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 제작해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또 아카데미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준비를 위해 열 차례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열어 이론적인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며, 커뮤니티는 ‘디자인 아일랜더’를 만들어낸 커뮤니티 사례를 소개하는 장이다.

디자인이 가득한 가상의 도시로 꾸며지는 전시장 구성도 독특하다. 전문가들의 작품(유명디자인)과 일상적인 작품(무명디자인)이 동일 공간에 어우러지고, 도로와 건물, 공원, 의자 등이 곳곳에 모여 조그만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낸다.

승효상 예술총감독은 “디자인은 단지 보기 좋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시 주제는 디자인이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7번째 축제 ‘갈 길은 멀다’

2010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이 31일 오후 4시 광주 클럽 네버마인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 축제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갈 길은 멀다.’

출연진은 다양하다. 영화 ‘고고 70’에 출연했던 차승우와 손경호가 이끄는 문 사이너스를 비롯해, 미니앨범 ‘끈’ 등으로 통해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여성 싱어송 라이터로 평가받는 한희

정 밴드, 헬리스파이스의 드러머 최재혁·마이 앤트 메리의 베이스 한진영 등이 구성한 평크 랙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 비둘기 우유, 9와 숫자들, 허니 브레드, 광광밴드 난 반델세, 베티 애스, 등이 출연한다.

또 평크 록밴드 ‘베티 애스’, 정규앨범 제작중인 광광밴드 난반델세, 청소년 밴드 ‘달토끼’, 힙합 뮤지션 G-ground 등 광주 지역 젊은 음악인



들도 무대에 선다. 티켓 가격 인터넷 예매 3만 원, 현대 2만원. cafe.daum.net/clubnmn.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로찬양단 내달 1일 연주회

음악으로 선교와 사랑을 전하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윤재우)이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김현구 장로가 작사하고 윤학원(종강대 교수)씨가 작곡한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를 시작으로 ‘주를 찬양하여여’ ‘만유의 하나님’ ‘나팔을 불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등을 선보이며 부부합창, 남성 4중창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

가야금의 울림… ‘그린나래’의 봄·여름·가을·겨울

‘토요 국악한마당’ 무대에

가야금 앙상블 ‘그린나래’가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토요상설 열린 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30일 오후 5시 국악전수관 공연장.

그린나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우리 가락으로 재해석, 그린나래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맛깔스럽게 선보이며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곡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표현한 ‘Spring’, ‘Summer’, ‘Autumn’, ‘Winter’를 비롯해 그린나래의 색채와 가을날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꽃날’, ‘꽃길’, ‘그린나래’, ‘야상곡’, Try to Remember 등이다. ‘그린나래’는 조선옥·홍유진·김한아·강지민·송정랑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리스트, 광주가야금 연주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을 노래합니다 음악으로 선교합니다



아여’ 등 다채로운 곡을 선사한다.

또 음악을 전공한 4자매로 구성된 ‘엘피스 양상불’이 특별출연해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쁨부으심’ 등의 곡을 연주한다. 지휘는 이준씨, 반주는 김은희씨와 이주영씨가 맡는다.

광주 지역 70개 교회 장로 100명으로 구성된 장로찬양단은 지난 1992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불우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봉사를 동도 펼치고 있다. 문의 011-624-9799. /김대성기자 bigkim@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장터

전복장을 찾а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약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신선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약식장 직영 도·소매
- | 홀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투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WWW.PARTY-FOOD.CO.KR

맛있을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출장뷔페 도시락납품 위탁급식 전문
파티외식산업

회갑, 칠순·팔순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제례대회·아유회·연회장 주차장 완비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목포지사 061)284-1115
순천지사 061)723-6003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 광주본사 226-0085~7